

어느 중·일 교류와 '동북아 구상'

이제는 통일국가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유럽연합이 공동체로서 성공하게 된 계기는 석탄철강공동체라 한다. 정치와 거리가 먼 기능분야에서 쉽게 시작하여 (aiming low) 결국은 정치통합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던 (scoring high) 것이다.

우리는 현재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구호 없이도 동북아의 다른 파트너들인 중국과 일본은 조용하고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1999년 중국을 방문한 일본 수상 오부치는 1998년 장강의 대홍수 피해상황을 보고 100억엔 (1000억원) 규모의 '일중녹화교류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기금으로 매년 30건 전후의 수림녹화사업이 벌어지더니 최근에는 북경과 상해 사이의 고속철도를 따라 90만 그루에 가까운 포플러를 심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삼천리에 해당하는 1200킬로의 도로 양쪽에 4미터 간격으로 포플러를 21줄 포개 심는다니 거대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포플러숲은 단순히 환경림, 방재림, 방사림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목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기능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담당하는 '중국녹화 및 자연환경의 개선을 지원하는 회'라는 긴 이름의 NPO는 만리장성이 아닌 '21세기의 녹색장성'을 쌓겠다는 야심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일본의 투자에는 필경 반대급부가 따를 것이다. 바로 북경-상해간 고속철도에 일본 신칸센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는 터이다.

이 고속철도사업권을 따지 못해도 녹색장성의 조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일본측은 장담하고 있다. 중국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가져다 줄 일본의 이미지 향상은 실재가치보다 훨씬 큰 것일 수 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이야기는 중국의 통신회사 중국신망통사와 일본의 NEC가 아시아전역을 커버하는 차세대인터넷망을 해저에 깎는다는 것이다. 중국통신이 분할하면서 북중국의 통신을 담당하게 된 망통은 미국회사 글로벌크로싱사의 해저케이블을 인수하여 야심차게 중국, 아시아 및 태평양의 주요도시를 잇는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를 내세운 NEC와 협력하여 국제 차원에서 차세대 인터넷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망통과 NEC가 펼치게 될 사업은 삼국지가 아닌 '오국지' 드라마를 더 활성화시키며 이를 외부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국지란 북경국, 상해국, 광둥국, 청도국, 대련국이라는 '5대 도시국가'의 눈부신 발전과 경쟁을 일컫는 말이다.

즉 중국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라 대량소비사회가 도래한 5개의 거대 도시국가와 9억의 농민인구가 사는 지방의 연합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전체에 대한 서방의 투자에 6배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 5대 도시국가이다.

인구로 본다면 상해, 강소, 절강을 아우르는 상해국이 1억3800만, 대련, 심양 등을 포함하는 대련국이 1억3300만, 청도, 연대를 이은 청도국이 9000만, 광주, 심천을 에워싼 광둥국이 8600만, 그리고 북경, 천진을 중심으로 하는 북경국이 2400만이다.

이렇다면 녹색의 장성은 최소한 1억7천만을 가지는 상해국과 천진국을 잇는 것이고 차세대 해저인터넷망은 4억7000이 사는 도시국가들을 해외로 이어주는 것이다.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선점권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긴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WTO회원국으로 새롭게 태어난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 중국 엘리트와 인민의 신뢰와 지지가 중국시장에서 발전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단순히 시장의 개척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현지에의 공헌, 나아가서 현지에의 동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경제 중심이라는 개념은 주위의 파트너 국가들이 용인하고 따라줄 때에만 가능하다. 중국인들은 아직도 중화사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동북아중심사상을 이슈영역별로 받아 들인다할 지라도 그것은 중국에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가시적인 가치를 창출해줄 때에 가능할 것이다. **KOVN**



CJK스트래티지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